

□ 선정평가 종합심사평

<런던패션위크 여성복 2019 쇼룸 참가 지원 사업 >

[런던패션위크 여성복 2019 쇼룸 참가 지원 사업] 최종 선정결과 종합심사평

본 사업은 '영국 내 한국 패션 브랜드 소개 및 글로벌 패션시장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런던패션위크 여성복 S/S 및 A/W 2019 기간 중 공식 개별 쇼룸 및 멀티쇼룸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별 쇼룸 및 멀티쇼룸 총 18개 브랜드가 지원 신청하였으며, 올해 개별 쇼룸은 약 2 : 1의 경쟁률을, 멀티쇼룸은 6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개별 쇼룸 및 멀티쇼룸 최종 선정 브랜드는 각 항목별 3개사로 1차 평가는 국내에서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2차 평가는 런던패션위크 주관사인 영국패션협회(British Fashion Council)에서 서면으로 해외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 섭외'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POOL 시스템에서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을 3배수 정하여, 평가 당일 참석 가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섭외를 확정하게 됩니다. 동 절차에 따라 국내평가에는 패션 장르 '디자이너/기획/제작 분야'에서 3명, '협회,학계,정책,대회협력 분야'에서 2명,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1명, '행사/컨설팅/ MD 분야'에서 1명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차 국내평가에서는 공고문에 공지된 대로 브랜드 상품성, 디자이너 역량, 해외진출 계획, 해외진출 역량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한 브랜드에 한해 해외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개별쇼룸의 경우, 4개사가 신청·접수하였지만 신청 필수요건인 영국패션협회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2개 업체로 인해 기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의거하여(3개사 이상 접수 시 평가 진행) 별도의 국내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최종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2차 해외평가 또한 서면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런던패션위크 주최사인 영국패션협회(British Fashion Council)에서 1차 국내평가를 통과한 8개사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영국패션협회에서는 탄탄한 해외 판매처와 다양하고 독특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가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3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차 국내평가와 2차 해외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모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및 디자인 특색이 돋보였지만 총 지원예산 등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한된 수의 브랜드만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해외진출 및 네트워킹 전략 마케팅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이 지원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브랜드들의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